

고전대하소설에 나타난 시비(侍婢)와 영웅적 여성인물의 관계성 고찰

김민정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목차

- 1 서론
- 2 시비의 행동 양상과 영웅적 여성인물의 행위 공간
 - 2.1 내부형(內部形) 조력자로서의 시비
 - 2.2 외부형(外部形) 조력자로서의 시비
- 3 노주(奴主)의 관계와 시비의 형상화 방식
 - 3.1 시비의 투입 시기와 영웅적 여성인물의 행위 양상
 - 3.2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구화되는 시비
 - 3.3 서사 문학 내의 시비와 배제된 서술시각
- 4 결론

고전대하소설의 시비는 기본적으로 주인을 조력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대부가 여성인 주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이 가진 보수적인 특성으로 인해 활발하게 계교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주인의 대리인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바로 시비들이다. 따라서 시비의 유형을 시비의 수행 공간과 주인의 존재 유무를 기준으로 크게 내부형 조력자와 외부형 조력자로 나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비의 조력자적 성격은 주인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웅적 여성인물'로 형상화될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고전대하소설에서 '영웅적 여성인물'은 여성영웅소설에서의 여성영웅과는 방향성이 다르다. 여성영웅소설에서의 여성영웅이 고착화된 여성으로서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라면, 고전대하소설에서의 영웅적 여성인물은 여성영웅의 삶의 양상과 흡사한 유형으로 묘사되면서도 여성으로서의 삶을 벗어나지 않고 유교적 이념을 그대로 순응하는 보수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대하소설의 시비들은 그들의 주인이 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인의 비윤리적, 비여성적 행위를 대신한다. 이 과정에서 시비들은 그들의 적극적인 양상과는 별개로 도구화된다.

국문핵심어: 고전소설, 대하소설, 고전대하소설, 성현공숙렬기, 임씨삼대록, 화산선계록, 영웅적 여성인물, 시비(侍婢), 하층 여성, 조력자

1 서론

이 글은 고전대하소설에 나타난 시비(侍婢)와 영웅적 여성인물의 관계성을 고찰하고 이들의 관계성에 구현된 시비의 타자성에 대해 살피기 위한 글이다. 고전대하소설에서의 시비는 주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주변인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고전대하소설이 가진 보수적인 성격 때문인데,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고전대하소설에서 하층민인 시비가 중심인물로 형상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비는 주인과의 관계 내에서 여성중

심인물인 주인의 행위 양상을 보필하는 조력자적 형태로 주로 나타나게 된다.

조력자로 형상화된 시비의 양상은 사대부가 여성인 주인이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여성중심인물은 보통 고착화된 여성의 봉건적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소극적으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시비는 이러한 주인의 한계를 보필하기 위해 주인이 수행하는 비윤리적, 비여성적(非女性的) 행위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 사대부가 여성은 실제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영웅화(英雄化)’된 여성인물의 시비의 경우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여성인물의 능력이 뛰어나고 이에 따라 수행하는 계교의 절대적 양이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를 수행하는 시비의 행위 양상 역시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양상을 『성현공숙렬기』의 효장공주, 『임씨삼대록』의 설성염, 『화산선계록』의 이옥수의 시비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효장공주, 설성염, 이옥수 모두 ‘영웅화’되고 있는 영웅적 여성인물¹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성영웅소설에서의 여성영웅과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특히 설성염은 전쟁 상황에 직접 간여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이옥수는 남성인물인 위현보다도 뛰어난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효장공주는 일회성 등장인물이기는 하나 그 능력이 범인(凡人)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영웅적 여성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성영웅’과는 또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여성영웅소설에서의 여성영웅이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면 이들은 여성성을 유지한 채로 능력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대하소설에서의 영웅적 여성인물들이 중세 유교 규범에 충실한 여성으로 형상화되면서도 유교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수행하게 됨은 시비들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인한 것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영웅적 여성인물’이라는 명칭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전대하소설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형상화되는 여성인물은 여성영웅소설에서의 여성영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을 ‘여성영웅’ 자체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여성영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들과의 구분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여성영웅이라는 명칭 대신 영웅화된 여성주동인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웅적 여성인물’을 사용함을 밝힌다. 해당 용어는 장시광(2006)의 논의에서 차용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에 나타난 영웅적 여성인물 연구-(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2호, 한국고소설학회, 2006, 197-238쪽.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영웅적 여성인물을 보필하는 시비의 양상이 어떻게 세분화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영웅적 여성인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고전대하소설의 시비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개별 작품론에 치우쳐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² 한길연³이나 정선희⁴의 논의는 여러 작품을 대상으로 보조인물을 논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 논의들 역시 보조인물 전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언급하고 있기에 시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고 역시 『성현공숙렬기』, 『임씨삼대록』, 『화산선계록』에 등장하는 시비 중 영웅적 여성인물을 보필하는 시비들의 단편적인 양상에만 집중하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 작품 내에

-
- 2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옹쌍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93쪽; 한길연, 「〈도맹행〉의 재치있는 시비군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3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349-382쪽;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보조인물의 양상과 서사적 효과」, 『국어국문학』 제158호, 2011, 245-274쪽; 정선희, 「장편고전소설에서 여성 보조인물의 추이와 그 의미-여성 독자층, 서사 전략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제40호, 고소설학회, 2015, 169-201쪽; 윤보윤, 「〈쌍주기연〉의 보조인물 고찰」, 『어문연구』 제93권, 어문연구학회, 2017, 155-186쪽; 김민정, 「〈쌍천기봉〉에 나타난 적극적 행동주체로서의 시녀」, 『온지논총』 제61권, 온지학회, 2019, 99-122쪽; 김민정, 「〈이씨세대록〉 시비(侍婢)의 역할 변화와 그 의미: 흥연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49호, 한국고소설학회, 2020, 181-217쪽; 김민정,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내·외부 조력자로서의 시비(侍婢)-열영, 상운, 매송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239-269쪽; 김민정,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복심(腹心)으로서의 시비-난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92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31-52쪽; 김민정, 「〈화산선계록〉에 나타난 조력자로서의 비복(婢僕)-비취·비운·남매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제34호, 동양문화연구원, 2021, 197-232쪽; 김민정, 「〈화산선계록〉에 나타난 ‘여주인-시비(侍婢)’의 관계-시비 설란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51호, 한국고소설학회, 2021, 71-115쪽.
 - 3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옹쌍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93쪽.
 - 4 정선희, 「장편고전소설에서 여성 보조인물의 추이와 그 의미-여성 독자층, 서사 전략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제40호, 고소설학회, 2015, 169-201쪽.

드러난 시비와 주인공과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고전대하소설의 시비가 행위하는 바와 시비의 도구성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정한 작품은 상기한 바와 같이 『성현공숙렬기』와 『임씨삼대록』 연작, 『화산선계록』으로 총 세 작품이다.⁵ 이들은 각각 별개의 작품이지만 영웅적 여성인물의 양상과 그에 따른 시비의 양상이 명백하게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세 작품에 나타난 영웅적 여성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노주(奴主)의 관계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영웅적 여성인물의 행위 공간과 시비의 행동 양상

이 푸 투안(Yi-Fu Tuan, 1930~)은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곳이 장소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이제까지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되어 온 공간과 장소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주장이다. 그에 의하면 추상적이고 낯선 개념의 공간은 인간과 또 다른 인간과의 관계, 다양한 상황, 그리고 인식 등에 의해 규정되고 정의된다. 이에 따라 공간은 대상과 장소의 상대적인 위치, 장소를 분리시키거나 연결하는 거리와 넓이, 보다 추상적으로 장소들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되게 된다. 이렇듯 공간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개인에게 주어지며, 움직임은 대상과 장소를 향하거나 그것들에 의해 저지되기도 한다.⁶

영웅적 여성인물의 공간 역시, 행위 공간이 변화하는 과정 내에서 새로이 규정된다. 이들의 공간은 친정(親庭)에서 시가(媿家)로, 규방(閨房)에서 전장(戰場)으로 물리적 공간이 직접 변화하기도 하고, 규방(閨房)이라는 같은 공간 내에서도

5 대본으로는 『성현공숙렬기』의 경우에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을 사용하고 『임씨삼대록』과 『화산선계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을 사용함을 밝힌다. 『임씨삼대록』은 현대역으로 번역되어 있기에 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김지영 역, 『임씨삼대록 1』, 소명출판, 2010; 최수현 역, 『임씨삼대록 2』, 소명출판, 2010; 한길역 역, 『임씨삼대록 3』, 소명출판, 2010; 서정민 역, 『임씨삼대록 4』, 소명출판, 2010; 조혜란 역, 『임씨삼대록 5』, 소명출판, 2010.

6 이 푸 투안,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165-169쪽.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재규정되기도 된다. 이와 같은 공간의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시비들이다. 시비들은 영웅적 여성인물의 행위 공간 내·외부에서 이들의 행위를 조력, 보완, 수정하며 영웅적 여성인물의 행위 공간을 확장시키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시비는 그 신분의 특성상 조력이라는 기본적 역할에서 대부분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 양상은 주인을 향한 충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⁷ 시비가 주인을 위해 행위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이들의 양상을 시비의 행위 공간과 주인의 존재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시비와 주인이 하나의 행위 공간 내에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내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 시비가 행위하는 공간에 주인이 부재하는 경우는 외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로 분류한다. 이때 시비와 주인이 하나의 행위 공간 내에 있을 때에는 그 공간이 규방과 같은 여성적 공간, 전장과 같은 남성적 공간의 구분 없이 시비가 행위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주인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였다. 즉, 영웅적 여성인물이 계교를 수행하는 행위 공간 내에 시비가 주인을 위해 조력하는 경우 내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는 주인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게 형상화된다.

반대로 외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는 영웅적 여성인물이 계교를 수행하는 행위 공간 내에 시비가 부재하는 시비를 말한다. 이는 물리적으로는 주인과 시비가 각각 다른 행위 공간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비가 주인의 행위 공간 외부에서 주인의 행위를 ‘대리하여’ 수행함으로써 주인의 행위 공간을 외부까지 확장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외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는 주인의 행위 공간을 벗어난 시비임과 동시에, 주인의 행위 공간을 확장

7 시비의 행위 목적은 충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개인의 욕망이 행위의 기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쌍천기봉』의 옥란과 같은 시비는 남성주동인물인 이몽창과 성적 관계를 맺은 이후, 이몽창이 자신에게 더 이상 애정을 두지 않자, 이몽창의 부인인 소월혜를 향해 반동 행위를 한다. 이때 옥란은 이몽창을 향한 성적인 열망을 이루기 위해 반동 행위를 하므로 주인을 향한 충성이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옥란과 같은 경우는 소수에 해당하며 고전대하소설에서의 시비 대부분은 주인을 향한 충성을 기반으로 행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 시비라 할 수 있다.

이에 2장에서는 『성현공숙렬기』의 효장공주, 『성현공숙렬기』의 설성염, 『화산선계록』의 이옥수의 시비들을 내부형 조력자와 외부형 조력자로 구분하여 시비의 조력 양상을 영웅적 여성인물의 행위 공간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내부형(內部形) 조력자로서의 시비

2.1.1 『화산선계록』 능소·능옥

이옥수는 『화산선계록』의 대표적인 여성주동인물이다. 이옥수의 능력은 단순히 통찰력이 있는 여성인물로 묘사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⁸ 이옥수의 능력은 뛰어난 능력을 넘어 ‘신이(神異)’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옥수는 『화산선계록』에 등장하는 어떠한 남성인물보다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어 있으며 어떠한 계교라도 단번에 파악한다. 그렇기에 『화산선계록』 내의 어떠한 반동인물도 이옥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옥수 역시 사대부 여성이기에 행동에 제약이 발생한다. 이옥수의 공간 내에서 이옥수가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하고 그 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옥수의 심복 시비인 능소와 능옥이다.

능소와 능옥은 위부(魏府) 동창궁이라는 이옥수의 공간 내에서 이옥수의 명을 수행하는 시비이다. 능소와 능옥은 이옥수가 위현과 혼인하여 위부에 입성하기 이전부터 이옥수를 모시던 시비로 이옥수의 어머니인 상 부인을 대신하여⁹ 이옥수를 양육한 시비이다.¹⁰ 그렇기에 이들은 이옥수의 등장부터 그의 수족이 되

8 일반적일 여성주동인물이 등장할 때 외모의 아름다움, 덕행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옥수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뛰어난 또한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옥수는 사광지충(師曠之聰), 이루지명(離婁之明)을 지닌 인물이자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지혜를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그의 능력의 뛰어난은 ‘열 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라는 표현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옥쇄 방년 십 세의 안식이 웃는 듯 곱고 턱도 덜세하며 성형이 뛰어난고 소광지충과 니루지명과 제갈의 지혜 잇스니” 『화산선계록』 권2, 9-10쪽

9 이옥수의 친모인 상 부인은 이옥수가 어렸을 때에 요절한다. 이후에 계모인 탕 부인이 이옥수의 아버지인 이한성의 후처(後妻)가 되는데, 탕 부인은 이옥수를 경계하고 이옥수를 모해한다.

10 “장하의 옥소 등 소기 시오와 유모로 더브러 침션을 부즈러니 하여 부공을 밧들고 가스를 선치후더니” 『화산선계록』 권2, 10쪽.

어 이옥수를 보필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옥수의 시비이자 양육자인 능소는 이옥수의 시비다운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우선 능소의 아름다운 외모는 양칠아라는 작중 인물의 눈으로 언급된다.

㉠ 칠이 놀나 도라보니 그 녀지 삼오이팔은 호고 분면 화안이 정모 쇠락하고 쌍미 낭안의 맑은 정기 어럭여시니 니부 당 쇼제 시오 능쇠러라
 (『화산선계록』 권2, 42쪽)

능소는 꽃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눈에는 맑은 정기가 어려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능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성향, 통찰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에서 능소의 외모를 묘사하는 것은 양칠아라는 여성인물인데, 능소는 자신의 통찰력을 사용해 양칠아 주변의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이옥수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양칠아는 당 부인의 오라비인 당관의 처(妻)이다. 당관은 양가(良家) 여인인 양칠아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를 강제로 겁탈하고는 자신의 부인으로 삼은 파렴치한 인물이다. 이옥수는 양칠아를 당춘에게서 구해내기 위해 능소를 움직인다. 여기서 양칠아를 구하는 것은 이옥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춘이 이옥수를 소금오와 결혼시키려 하자 자신의 대리인으로 양칠아를 눈여겨보고 그를 당춘에게서 구출해 소금오와 혼인시키기 때문이다. 즉 양칠아의 구원 역시 이옥수 자신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능소는 이옥수의 명을 받아 당춘이 양칠아를 팔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는 이부(李府)로 돌아온다. 이옥수는 능소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왔음을 거듭 칭찬한다.

㉡ 능쇠 허락하고 도라오니 쇼제 웃고 왈 네 가서 공을 일워온다 능쇠 웃고 디왈 양칠이 시방 활 그림즈를 보고 노을을 어더더이다 쇼제 왈 엇지 니르미노 쇠 디왈 쇼비 명을 밧즈와 가산 우히 가 칠이를 보고즈 호더니 탕적이 웃 가슴을 헛치고 희희이 우으며 드러오거늘 쇼비 가산 슈목 소이의 숨어보니 탕적이 칠이를 희롱하며 금은 어드플 즈랑하니 칠이 의심

하여 탕적을 욕미하여 쓰호미 된지라 철이 저를 파는가 하여 죽으려 하니 엇지 활 그림지 아니릿가 쇼제 왈 니 일이 급흔지라 부득이 철으러 다리여 탕적의 날 욕허려흐를 갑흐려 하였더니 철이 탕적을 즈레 의심 하여시니 하늘이 도오미로다 니 반간계를 못 밋쳐써 철으러 낭중취물을 민드니 만일 능쇠 아니면 이 일을 엇지 하리오 능쇠 황망이 비스 왈 쇼저 총명이 당중의 안주 천니의 일을 산두시니 엇지 소비의 공이리잇고

(『화산선계록』 권2, 47-49쪽)

이옥수는 능소에게 ‘반간계(反間計)’의 계략을 수행할 것을 명한다. 이옥수의 명을 받고 양칠아를 찾아간 능소는 탕춘이 양칠아를 팔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마라고 양칠아를 탕춘에게서 도망시켜 주겠다고 약속한다. 성공적으로 일을 수해하고 온 능소에게 이옥수는 거듭하여 칭찬한다. 하지만 능소의 모든 계획은 능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옥수의 명을 받아 이루어진 일이다. 능소의 ‘소비(小婢)가 명을 받아서’라는 표현이나 ‘소저(小姐)의 총명함이 당중(堂中)의 앓아 천리의 일을 계산하시니 어찌 소비의 공이겠습니까?’라는 표현들은 이옥수가 일어나지 않을 이른바 ‘천리의 일’까지 계산하는 신이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바라 하겠다. 이를 통해 시비의 적극적인 행위 양상과 별개로 이옥수가 계교를 생성하는 모든 과정을 전담하고 있으며 시비인 능소는 이옥수의 계교를 수행하는 수행자로서의 역할만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능소뿐만이 아니라 능옥의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능옥은 능소와는 달리 외모가 묘사되어 있는 인물은 아니나 여러 서사를 통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능옥은 이옥수를 대신해 신물(神物)을 사용해 자객을 무찌르는, 매우 적극적으로 형상화되는 시비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능옥 역시 능소와 마찬가지로 계교를 생성하는 주체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능옥은 이옥수를 죽이러 온 자객을 직접 나서서 처단한다. 하지만 능옥은 이옥수의 명령에 따를 뿐 스스로 계교를 만들어내지는 못 하는 모습을 보인다. 계교를 수행하는 수행자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 능옥이 임의 부인의 분부를 드른지라 답을 크게 하고 급히 니러나 벽

상의 홍금삭을 가지고 적을 향하여 더지니 그 노히 스스로 적을 긴긴이
결박하여 닳고즈하나 노히 몸의 박혀 벼슬 길이 업스니 더욱 황망하여
평성 요법을 다하여 썩호로 스못는 진언을 넘히더니 문득 우레 은은하며
신검이 스스로 느려와 낭적을 버히니 쇼위 금선불은 큰 스슴이 되고 호
선낭은 큰 여이 되어 머리 썩러져 죽으니 낭 뇨의 하둔 은공 중의셔 동정
을 보다가 동히 곱흔 입을 버리고 스름을 히코즈하니 그세 풍우 곱흔지
라 능옥이 조마경을 드러 마도 빗최니 적이 쇼릭 지르고 크게 변하여 비
얍이 되어 쓸히 업치고 요동치 못하느니라 이셔 궁인의 무리 다 실식하
여 면무인식하고 능옥이 담타하여 거울을 들고 섰시나 놀난 눈이 현황하
고 송구하여 허거늘 뉴정 낭 부인은 두리온 뜻이 잇스나 홀노 니 부인이
안식이 여전하고 동고 안상 단엄하여 도금도 요동치 아니터라

(『화산선계록』 권14, 35-37쪽)

이옥수는 요인(妖人)이 동창궁에 자객으로 올 것을 미리 짐작하고 방 안에 홍금삭, 조마경, 신검과 같은 신물을 배치한다. 능옥은 이 신물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형상화되어 있다. ㉠의 장면은 이옥수의 분부를 받은 능옥이 자객을 저지하는 장면인데, 능옥이 이옥수의 명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능옥이 자객을 향해 조마경을 들자 자객은 뱀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 동창궁의 궁인들이 뱀으로 변한 자객의 모습을 보며 모두 놀라 얼굴빛이 변하는데 이는 담대한 능옥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능옥에 의해 자객의 본모습이 드러나지만 능옥 역시도 이를 계획한 이가 아닌 수행자일 뿐이므로 뱀의 모습에 매우 놀라게 된 것이다. 모두가 놀라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옥수만이 뱀을 보며 놀라지 않는 모습은 이옥수의 신이한 능력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이 외에도 능옥은 위헌과 위인창을 명을 받아 위명주의 상처를 치료할 이부인의 고약(膏藥)을 보내는 심부름을 수행하거나 진왕에게 이옥수가 회생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능소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능소와 능옥은 이른바 ‘양칠야 사건’, ‘동창궁 자객 사건’이 끝나고는 큰 활약을 하지 않는데, 이는 이후의 계교가 동창궁이 아닌 동창궁 외의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능소와 능옥은 이옥수의 측근이자 내부형 조력자로

서의 시비이기 때문에 이부(李府)나 위부 동창궁과 같은 이옥수의 공간 내에서만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옥수의 공간을 벗어난 곳의 계교는 외부형 조력자인 시비들이 행위를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능소와 능옥이 이후의 계교에서 등장하지 않고 단순한 심부름꾼으로만 형상화되는 모습은 이옥수의 시비들이 내·외부 조력자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바라 하겠다.

2.1.2 『임씨삼대록』 영섬·매송·열영

『임씨삼대록』의 여성 주동인물 설성염은 반동인물인 옥선군주의 모해(謀害)로 도로에 유리하게 되고, 여러 고난을 겪게 된다. 설성염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주숙렬이 『성현공숙렬기』에서 겪었던 고난을 답습한다. 설성염 역시 주숙렬과 마찬가지로 도로에 유리하는 고난의 상황에서 전쟁에 참전(參戰)하기 때문이다.¹¹ 이때 설성염의 참전 상황에서 주인을 보필해 초월적 능력을 보이고 있는 이들이 바로 화앵, 계앵, 녹란, 벽완과 같은 시비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가진 시비들 외에도 설성염을 조력하는 시비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설성염의 고난 상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내·외부로 조력을 하는 시비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설성염의 측근에서 일반적인 시비의 역할을 하는 내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인 영섬, 매송의 양상을 살피고 이후의 절에서는 설성염이 참전을 하는 상황에서 초

11 『성현공숙렬기』의 여성주동인물 주숙렬은 남장(男裝)을 하고 직접 전쟁에 참전하지만 『임씨삼대록』의 설성염은 시비들을 움직여 자신의 대리인으로 시비들을 전장에 침투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주숙렬을 설성염보다 더욱 적극적인 형태의 영웅적 여성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성염이 자신의 의지로 전쟁 상황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주숙렬은 상황의 흐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전한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고전대하소설에 드러나는 영웅적 여성인물의 전반적인 특징이므로 주숙렬 역시 영웅적 여성인물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숙렬의 양상이 설성염과 거의 흡사하며, 시비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므로 이 글에서는 주숙렬의 양상은 제외하고 설성염의 양상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음을 밝힌다. 주숙렬의 영웅적 형상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김민정,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내·외부 조력자로서의 시비(侍婢)-열영, 상운, 매송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0, 239-269쪽.

월적 능력으로 설성염을 보필하는 외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인 화앵¹², 계영, 녹란, 벽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설성염은 옥선군주의 계교로 인해 목지란 살인사건의 주동자로 몰리고 이로 인해 남해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설성염은 남동생인 설희광과 유배지인 남해로 가는 길에 목지형의 습격을 피해 옥화산의 연 처사의 집에 안둔하게 된다. 설성염은 연 처사의 집에서 임세천·임세울 쌍둥이를 출산하고 설성염을 찾아 온 시숙부(媿叔父) 임유린이 임세천과 임세울을 임부로 데려가게 된다. 이때 설성염은 임유린에게 시비 앵섬을 위급한 때에 쓰기 위해 데리고 가겠다 하고 임유린은 이를 허락한다.¹³ 시비인 앵섬, 매송¹⁴, 화앵이 설성염의 고난의 상황에서 조력자로 활약하는 것은 이 시기부터이다. 임유린이 떠나고 설성염이 유배길에 다시 오르자 설

12 화앵은 내부형 조력자에서 외부형 조력자로 변모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내부형 조력자로 등장하는 서사에서는 화앵보다는 앵섬과 매송의 언급이 많고 화앵은 외부형 조력자로 형상화될 때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나므로 화앵의 양상은 이후 외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13 “비즈 앵섬은 여력이 과인후와 급난의 썸 죽호오니 계양으로 덕신호와 오히를 보호케 호옵고 앵섬 다려 가기를 고희노이다 쇼뷔 더욱 잔잉이 녀겨 스스의 마음되로 허라 하니 쇼계 스투하고 일장 니별을 맞고 처스 부인기 하직을 고희니” 『임씨삼대록』 권16, 69쪽

14 이때 매송은 전작인 『성현공숙렬기』에서 주숙렬을 보필하던 시비 매송으로 보인다. 주숙렬은 설성염의 화를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시비인 열영, 상운, 매송을 불러 설성염을 보필하게끔 지시한다. 이로 인해 이후 설성염의 서사에서 주숙렬의 시비인 열영, 상운, 매송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성현공숙렬기』에서는 신이한 능력을 가져 외부형 조력자로 형상화되었던 상운과 매송이 『임씨삼대록』에서는 일반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형 조력자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설성염이 시어머니인 주숙렬에게 하사받은 시비들은 모두 내부형 조력자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이후에 설성염의 외부형 조력자로 형상화된 시비는 모두 도인인 위 진군에게서 하사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주숙렬과 설성염의 시비들이 내·외부로 구성되는 양상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인물	내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		외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	
	등장 양상	이름	등장 양상	이름
『성현공숙렬기』 주숙렬	시할머니인 관 부인에게 하사받음	열영	신이한 능력을 지닌 태허법사에게 하사받음	상운, 매송
『임씨삼대록』 설성염	시어머니인 주숙렬에게 하사받음	열영, 상운, 매송	신이한 능력을 지닌 위 진군에게 하사받음	녹란, 벽완

성염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설성염은 연 처사의 집을 떠나 한 촌가(村家)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시아버지인 임희린의 편지를 보던 설성염은 도적의 습격을 받게 된다. 이때 설성염을 등에 업고 나는 듯이 도망을 치는 것이 바로 매송과 앵섬이다.¹⁵ 여러 시비가 설성염을 업은 매송과 앵섬을 따라가나 화앵을 제외한 다른 시비는 이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매송과 앵섬은 무려 10여 리를 달려 도적을 따돌리게 된다. 이처럼 고난 상황에서 조력자로 활약하는 것은 설성염의 시비 중 특히 매송과 앵섬이다. 그 중에서도 앵섬은 ‘여력(膂力)이 과인(過人)’하다는 것을 이유로 설성염을 따르게 된다. 설성염은 급난(急難)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앵섬을 데려가는데 이는 설성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앵섬을 포함한 시비의 노력에도 이들은 설성염을 구원하지 못한다. 결국 도적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한 설성염은 화를 피하기 위해 앵섬, 매송 그리고 화앵과 함께 강물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강물에 뛰어든 설성염을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도인(道人) 위 진군이다. 진군은 이미 죽은 설성염과 앵섬, 매송, 화앵에게 도술을 사용해 이들을 살리고는 설성염이 남악 형산에서 3년 동안 수도(修道)해야 함을 이른다. 설성염이 천문지리와 육도삼략을 깨치고 신묘한 술법을 익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이 시기를 거친 설성염은 일반적인 능력을 넘어선 신이한 통찰력으로 모든 계교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15 여기서 서사의 오류가 보인다. 본문에는 설성염을 업고 도망친 것이 ‘매송과 앵섬’이라고 되어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화앵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후에 설성염과 함께 강물에 빠진 것이 ‘매송 앵섬 화앵’이라는 서술에 따라 ‘매송’은 ‘매송’의 오키로 보았다. 이후의 서사에서도 설성염과 함께 하는 것은 매송과 앵섬 그리고 화앵이다. “미홍 잉섬이 가뱃야이 쇼저를 등의 업고 나는 드시 다르니 제 시네 일시의 통곡하고 썩로나 밋지 못하고 화앵이 잉섬을 썩라 진녁하여 거르되 잉섬이 쇼저를 업고 독불니지하여 놓흔 저를 넘어 밋서 십여 리나 다르니 각녁이 진힐 듯흔지라 쇼제 일성이호 왈 날이 불과 슈일형이 못되여 도적을 썩 맞느니 구초히 소라 무엇허리오 말이 밋지 못하여 일진 강되 썩로며 웨여 왈 (중략) 쇼제 혼 번 쇼러하고 흥의 등의 내려 왈 소이 지초히니 무가니히라 구고의 지우지은을 갑지 못하고 이제 형세 위급하니 솔지 못허리라 하고 몸을 쇼쇼와 제비긋치 강심의 썩여드니 미송 잉섬 화앵 등이 일시의 썩여드느니라” 『임씨삼대록』 권17, 9-11쪽.

술법을 익힌 설성염은 진군에게 녹란과 벽완을 받고 자신의 시비인 화영과 계영에게 계교를 가르쳐 각각 한왕이 있는 한나라 진영과 임희린이 있는 명나라 진영으로 보낸다.¹⁶ 이 시기에 외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의 활약이 중심이 된다면 이 시기가 지나고 설성염이 임부로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내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들의 활약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이 시기 이후 설성염은 임부로 돌아오자마자 반동인물인 남연랑과 곽교란의 계교를 꿰뚫어보고 매송에게 계교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초월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 선시의 설의열이 스일을 한 번 흘기미 밭서 남곽 낭녀의 속을 빗최
눈지라 미송으로 계교를 가르쳐 보너미 미송이 누오가 쇼 쇼저를 보고
츄스를 통헌 후 초인을 만드러 쇼저의 의상을 낚히고 쇼저로 더브러 협
실의 피후엿더니 과연 야심헌 후 괴이헌 괴운이 드리오며 쇼저를 동쳐
썩가지고 다라니 시녀의 무리는 일신을 썰고 쇼 쇼저는 무스무려후여
놀남도 업고 구겁흥도 업스니 실노 성녀첼뵈러라 미송이 설 부인의 지교
를 드르무로 요인을 짐쭈 노화 보너고 시녀 등다려 쇼저 일흐믈 반포케
호고 쇼저를 다려 숙닐비의게로 오니 설의열이 밭서 니르러 츄스를 고후
고 오기를 기다리더라 (『임씨삼대록』 권26, 29-30쪽)

설성염은 소씨를 구할 계교를 세우고는 매송에게 이를 알린다. 매송은 초인(草人)에게 소씨의 옷을 입힌 후 소씨를 대피시킨다. 설성염의 계교로 인해 소씨는 목숨을 구하게 된다. 설성염의 신명함은 이로 끝나지 않는다. 임빙혜 역시 설성염이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기 때문이다.

㉡ 설 부인이 잉터 만월후여시되 돈당 구괴 아지 못후엿더니 이늘도 오

16 “어시의 설 쇼제 선두의셔 화잉 계잉 녹란 벽완 등으로 더브러 낭진 승피를 듯보더니 한왕이 스문의 방 붓쳐 지용지장을 구헌다 후를 알고 녹란 벽완으로 계교를 가르쳐 한진으로 보너고 화잉 계잉으로 계교를 가르쳐 명진으로 보너미 스인이 슈명호고 나오와 분슈후여” 『임씨삼대록』 권23, 13쪽.

후 꺾도록 거동이 평상하여 일호도 불평한 괴식이 업스니 돌연 일각지니
 로서 산덤이 이러듯 급하니 이 가히 의녘의 니른바 성인도 오는 익은 면
 치 못한다 하니 임 쇼제 임의 익을 당하였는지라 엇지 인녘이 미술 버리
 오 의녘이 급히 안호로 드니 좌중이 놀누며 돈당 구괴 바야호로 산괴를
 알고 급히 좌우 시녀로 하여곰 붓드러 스침의 가 구호하라 하니 의녘이
 계오 침누의 도라와 통세 되단하니 시비 구호하더니 식경 후 문득 일척
 벽옥을 성하니 산실의 향운이 니러누고 아히 괴골이 석되하며 우름 소리
 집 말니 울니고 큰 뇌덩 소리 고타니 유랑 시네 되회하여 년망이 강보로
 거두며 깁반을 출처 구호하며 일변 돈당의 고타니라 (중략) 설부로서는
 주운산이 상계 고타오니 요인이 금야의 반드시 쇼고를 잡으다가 주운산
 암혈의 가 히힐 거시니 급급히 주운산 상봉의 올라 기드려 선처하라 혹
 괴이한 업축이 잇실지라도 녹난 벽완이 잇스니 놀누지 말나 년미 등이
 듯고 되경하더라 (『임씨삼대록』 권28, 73-76쪽)

㉔ 추설 년미 등이 추언을 듯고 되경실식하여 급히 녹인이 다 복식을 곳
 치고 다시 고왈 만일 쇼저를 구하거든 어디로 가리잇고 부인 왈 쇼제 금
 년 횡익지쉬 이시니 일 년만 깁히 피하미 올흐니 바로 후원 도은곡 은실
 노 되시게 하라 제네 슈명호고 원문을 느셔니 발서 석양이 되엇더라
 (『임씨삼대록』 권29, 1쪽)

㉓과 ㉔의 장면은 설성염이 임병혜의 재앙을 알고 시비들에게 임병혜를 구할 것
 을 명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설성염의 신명함이 두드러진다. 설성염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그것으로 열영¹⁷과 매송 등 6명의 시비를 보낸다. 설성염이
 모든 계교를 만들어내고 시비는 수행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부
 분이다. ㉔의 장면은 이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열영과 매송을 비롯한 시비들이

17 여기서 등장하는 열영은 전작(前作)인 『성현공숙렬기』에 등장하는 열영과 동일인물로 보인다. 주숙렬이 머느리인 설성염이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시비인 열영을 설성염에게 하사하
 는 장면으로 미루어보아 동일인물이라 추측할 수 있다.

‘만일 임빙혜를 구한다면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하나’고 묻자 설성염이 임빙혜를 후실 도은곡의 은실로 데려오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성염의 시비들이 계교의 생성에 따로 참여하지 않고 모든 계교의 세부적인 사안까지 주인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비가 계교의 생성에 기여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㊸ 의녘이 눈을 드러 일견의 비록 짐죽흔 비나 시로이 경히추악흐믈 니
 기지 못하여 냥구속시러니 텅명지긔 요네의 얼굴의 쓰이며 피부의 요괴
로운 거동이 점점 드러나 완연흔 석일 남시 연낭이라 좌위 그 변용흐믈
 놀나고 의녘과 성녘이 역경하여 넬미 냥파를 도라보니 냥피 요네를 단단
이 붓드미 요네 츠시를 당하여 도시 답이나 무어시라 흐리오 세 니치 아
 니믈 보고 다라노고조흐나 구지 잡으시니 능히 말미암지 못하고 긴 치마
 를 후리치고 화관을 버셔 더지고 삼삼히 일진괴풍이 되어 공중의 썬여
 을나 경긔의 부지거쳐흐니 가중 상히 무망의 괴변 히스를 보니 아니 놀
 누 리 업고 공가 비복이 역시 놀나 어린 듯흐더라

(『임씨삼대록』 권30, 23-24쪽)

설성염의 통찰력과 시비가 설성염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모습은 이후의 양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㊸은 설성염이 변용단(變容丹)을 먹은 남연량의 정체를 바로 알아채는 모습이다. 설성염은 남연량에게 눈길을 주고 이에 남연량은 예전 얼굴로 돌아오게 된다. 이후 남연량을 붙잡는 것 역시 ㊸의 장면으로 알 수 있듯이 설성염의 명을 수행하는 열영과 매송이다. 이처럼 여러 상황을 통해 설성염의 시비들이 계교를 만들어내는 상황에 기여하고 있지 않음과 수행자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외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

2.2.1 『성현공숙렬기』 비경

『성현공숙렬기』의 효장공주는 『화산선계록』의 이옥수와 마찬가지로 특출한 능

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그렇기에 능소나 능옥, 비취 등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순응하는 영웅적 여성인물의 시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게 된다. 비경 역시 주인의 뛰어난으로 인해 시비가 계교의 생성에 기여하지 않으며 계교의 생성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효장공주는 임세린의 첫 번째 부인이다. 임세린은 그의 풍채를 마음에 둔 황제에 의해 정혼자인 소 소저가 있음에도 효장공주와 늑혼(勒婚)을 당하게 된다. 효장공주는 임세린이 정혼자가 있었음에도 자신과 혼인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혼인 후에야 그 사실을 알고 소 소저와 임세린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노력한다.

늑혼으로 인해 소부(-府)가 아닌 황실과 사돈을 맺게 된 임부(林府)에서는 효장공주와의 혼사를 못마땅해 했지만 혼례일에 효장공주의 자태를 본 임부 일가 들은 모두 공주의 자태에 감탄하고 공주를 임부 일가로 인정하게 된다. 서술자 역시 효장공주의 뛰어난 통찰력과 너그러운 인품을 지속적으로 묘사한다.

한왕이 소 소저를 납치한 사건으로 효장공주는 오해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효장공주는 소 소저를 구해내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여느 지배층 여성이 그렇듯 행동이 자유롭지 않은 효장공주의 수족(手足)이 되어주는 것은 그의 심복 시비인 비경이다. 비경은 공주의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비경은 공주가 계획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루어내는 현명한 시비이지만 일을 실행함에 있어 비경의 의지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다.

㉠ 급히 시녀 비경을 불러 밀계를 꾸리치고 잠미를 빙기여 흑주저를 구치 못할가 심시 요 ” 하니 현지라 효당공주여 뉘 적국을 위하여 저고혼 성심이 잇시리오 (『성현공숙렬기』 권10, 2쪽)

㉡ 시 ” 의 비경이 공주의 밀지를 보다 꺾문을 나가 복식을 갖쳐 한궁 비주의 민도리를 하고 황혼 씨의 한궁 별원의 니르러 왕의 나오지 아닌 씨를 타 바로 별당으로 드러가니 왕이 본디 비경을 보지 못하엿실 분더러 비경이 공주의 친신 시녀로 왕의 호탕함을 두려 갖가이 비지 아니턴 비라 엇지 분변하리오 이 씨 왕이 관옥의 모계로써 천고 숙녀를 목전의

두고 효장의 빙옥청덕을 못지르니 꽤 할 니기지 못하여 의기 승〃 하디
(『성현공숙렬기』 권10, 9쪽)

㉔ 이 씨 비경이 슈문즈의게 전하여 왈 본궁 낭〃 이 천튜 던하를 단싱하여
계시니 썰니 대왕기 알외라 왕이 본디 정궁의는 왕직 업고 빈희 잉티
십 삭이라 디희하여 밧비 불너 문왈 너는 어닌 밧 시네며 낭〃 이 분명 싱
남하시나 비경이 디왈 천비는 주방의 통슈하였습거늘 엇지 범연이 아
라 고허리잇고 왕즈를 탄싱하여 계시디 쇼 공직 무슴 병증이 계시다 하
여 궁중이 진경하여 소비를 급히 보너지디이다 왕이 식중아귀므로 여러
빈희를 두엇시디 싱산이 엷다가 그 싱남함을 깃거하고 쏘 으히 유병함을
놀나 심시를 불너 쇼시를 잘 권유하라 하고 단기로 도성으로 드러가거늘
비경이 왕을 뵈셔 가는 취 하고 몸을 썩쳐 이윽후 급히 드러와 심시를
혼동하디 (『성현공숙렬기』 권10, 11쪽)

비경이 효장공주의 명을 받아 한왕을 속이고 소 소저를 구해내는 장면은 10권 초
반부에 집중되어 있어 그 분량이 많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경의 행
동 양상은 뛰어난 주인의 시비가 명령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㉕ 비경이 계교 순함을 깃거 왈 우리 옥주의 성덕이 적국을 위하샤 신출
귀몰한 밀계를 베프시미 황턴이 감동하샤 성식 순하리로다 하고 좌우 시
비드려 왈 우리 궁이 비록 머지 아니나 여러 순 밧븐 거름을 하였더니 저
기 시장할 분아나 우리 다 한 집안 슴으로 상면하미 처음이라 내게 은
전이 잇시니 슈고를 앗기지 말고 주육을 스오면 뇨기도 하고 처음보는
네를 하고저하노라 (『성현공숙렬기』 권10, 12쪽)

계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경은 지속적으로 모든 계교가 효장공주의 계교임을
강조한다. ㉕의 장면에서도 공주가 신출귀몰한 밀계(密計)를 만들어내었고 이로
인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비경의 말은 주인

을 향한 시비의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서술자가 일의 원활한 해결이 효장공주의 밑거름의 완성도로 인한 것임을 비경의 입을 통해 대리서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이후의 서사에서 소부(-府)의 일원들은 상황을 해결한 효장공주의 능력을 거듭 언급하고 칭찬한다.

㊤ 상세 한왕을 절치하느 동 공주의 성덕을 감격하여 북궐을 바라 비사하고 쇼저드려 왈 공주의 은혜는 호턴망극이오 비경의 공덕은 둥여하히하니 물신경지하여 타일 구턴의 결초보은하를 싱각하라 공주의 여츨 성덕과 빙심옥결노 적국 모히하는 누명을 시르니 엇지 분통치 아니리오 쇼제 공주의 논획 바드물 드르미 탄식 디왈 쇼네 의구히 도라오물 옥탑의 알외고 한왕의 죄를 정히 훈족 공궐 신원하실 비로디 이는 은인의 뜻이 아니라 하날이 반드시 흥적을 버히실 날이 잇스리니

(『성현공숙렬기』 권10, 16-17쪽)

소 소저가 무사히 돌아오자 소부에서는 효장공주의 은혜(恩惠)와 비경의 공덕(功德)을 칭찬한다. 이처럼 공주의 성덕을 언급하는 장면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된다.¹⁸ 비경은 이 계교를 해결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서사에 언급되지 않으나 효장공주의 뛰어난 능력은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효장공주는 속편인 『임씨삼대록』에서도 조카인 옥선군주의 악한 마음을 눈치 채고 옥선군주를 타이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효장공주와 옥선군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서사는 효장공주가 문제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경의 행위 양상은 일반적인 시비와 비교한다면 적극적이라 볼 수 있다. 비경은 주인의 명을 따라 한왕의 궁에 침투하여 망설임 없이 모든 명을 수행한다. 하지만 망설임 없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든 양상은 비경이 소유한 능력의 뛰어난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경이 ‘고민’하여 문

18 “공주의 성덕으로 녀의 싱존하” 『성현공숙렬기』 권10, 17쪽, “공주의 성덕을 고히던” 『성현공숙렬기』 권10, 18쪽.

제를 해결하거나 스스로 생각하여 문제 상황을 이끌어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비경은 모든 것을 예상한 듯 계획대로 움직인다. 즉 비경은 스스로 고민하여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효장공주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관 위의 말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즉 비경에게 부과한 적극성은 효장공주의 계획을 순응할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2.2.2 『임씨삼대록』 화앵·계앵·녹란·벽완

주숙렬의 고난을 끝으로 퇴장한 열영, 상운, 매송은 『성현공숙렬기』의 속편(續篇)인 『임씨삼대록』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열영, 상운, 매송이 『임씨삼대록』의 새로운 종통(宗統) 임창홍의 아내인 설성염의 서사에서 다시금 등장하기 때문이다. 설성염은 주숙렬의 며느리로 관 부인이 주숙렬에게 열영을 내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며느리인 설성염에게 위기가 발생하자 열영, 상운과 매송을 설성염에게 내어준다. 열영, 상운, 매송은 설성염의 주된 심복들은 아니나 주숙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설성염을 위기에서 구해낸다. 주숙렬은 설성염이 옥선 군주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상운과 매송을 설성염에게 보내기도 하며¹⁹, 황후의 부름을 받아 궐로 들어가게 된 설성염을 시호하고 방비할 것을 명하며 열영과 매송을 내어주기도 한다.²⁰ 이처럼 열영, 상운, 매송은 『성현공숙렬기』 때와 마찬가지로 설성염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서사에 등장하고 서사에서 퇴장한다.

특이한 점은 『임씨삼대록』에서는 『성현공숙렬기』에서 초월적 능력을 가진

19 “또 상미를 분부하여 비밀이 그르치고 도라왔더니 설 소제 돈고의 신명하시를 탄복하고 상파로 더브러 비의지교 디로 초인을 민드러 장엄하여 안치고 주가는 협실의셔 화잉 계잉으로 편히 주더니 과연 요인이 덕독을 발하여 비슈를 끼고 이르렀다가 옥중의 곳치니” 『임씨삼대록』 권10, 40쪽.

20 “쥬비 9조의 말이 언언이 덕군주의 숙연한 의논이 명달하여 쇼쇼소정의 쥬럽드지 아니를 아름다이 녀여 점두 왈 돈구 덕인이 허가하시고 가국이 공허한 썩 식부를 도모하는 요식 분분하니 마음이 절박하여 그 말이러니 여언이 심합아심이라 네 뜻디로 허리라 하고 이의 열영 미송 등을 쇼저를 시호하여 방비하라 하고” 『임씨삼대록』 권13, 22쪽.

시비로 등장했던 상운, 매송이 일반적인 역할의 시비로 등장하고 여성주동인물인 설성염을 조력하는 시비 중에 『성현공숙렬기』에서의 상운·매송과 같은 역할을 하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시비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이다.²¹ 이에 이 절에서는 『성현공숙렬기』에서의 상운·매송과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설성염의 외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의 양상을 살펴볼 예정이다.

설성염은 주숙렬과 마찬가지로 영웅적 여성인물의 형상으로 전쟁 상황에 간여하는 인물이다. 설성염은 주숙렬과는 달리 직접 전장에 나서지는 않지만 자신의 대리인으로 시비 네 명을 전장에 침투시킨다. 위 진군에게 술법을 익혀 신이한 능력을 갖게 된 설성염은 한군과 명군의 싸움을 보고 한 계교를 생각해낸다. 그리고는 녹란과 벽완에게 계교를 가르쳐 한군에 보내고 화앵과 계앵에게도 계교를 가르쳐 명군으로 보낸다. 네 명의 시비는 남장(男裝)을 한 뒤 도인(道人)으로 위장하고는 각 군에 접근한다.

㉠ 녹란 벽완이 한진의 이르러 방목을 써히니 탐미 붓드러 진의 드리미
한왕이 마즈 문기성명하고 왈 과인이 무덕허거늘 낭위 도인이 하쳐출이
완디 신군이 츠즈 이르니 무슴 가르칠 일이 잇누뇨 낭인이 공슈 디왈 빈
도 등은 산야우밍이라 무슴 적용이 잇소리잇고마는 본디 주최 턴하의 방
낭허여 아니 가는 곳이 업습터니 우연이 츠지의 이르러 듯스오니 디왕
이 탕무의 덕이 계시다 허오미 외람이 돕습고즈 오괘이다 한왕이 깃거
왈 진실노 이 말 고흔진디 천하를 통일허는 날 그디 등으로 허여곰 할토
봉왕허여 기국훈신으로 빗닉게 허리라 (...) 왕이 디경허여 급히 말뉴허

21 『성현공숙렬기』의 상운과 매송이 애초부터 초월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시비였던 것과 반대로 『임씨삼대록』의 시비들은 원래는 평범한 시비였다가 주인과 함께 수련을 하고 능력을 얻어 전장에 나가 승리를 거두는 등의 활약을 한다. “설소저는 나중에 화앵, 계앵, 녹란, 벽란 등 5명의 시비와 함께 1년여에 걸쳐 도술과 의술을 배우고, 옥선과 옥경 군주 한왕 등이 일으킨 전쟁에 맞서 명나라 진영의 임창홍 등과 함께 싸워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주인과 시비가 함께 수련하고 시비들이 먼저 전장에 나가 승리를 거두는 등의 활약을 하는 모습도 보기 드문 예이다” 정선희, 앞의 글, 175쪽.

고 성찬으로 디접하며 스죄하고 성명을 무르니 디왈 비인 등은 녹운즈
벽운즈라 하나이다 왕이 혼연 왈 군등은 허물 치 말고 지도를 한번 시험
홀쇼냐 (『임씨삼대록』 권23, 13-16쪽)

㉠ 왕이 인하여 냥인으로 좌우익 장군을 삼더라
(『임씨삼대록』 권23, 18쪽)

㉡ 츠시 화잉 계잉이 설 쇼저의 교령을 바다 명진의 이르러 원슈기 비오
물 청허니 군식 드러가 보흔디 원슈 즉시 청허거늘 냥인이 드러와 중계의
서 지비하고 왈 쇼도는 일시 과격이웁더니 스승 부운시 이의 와 머무실
시 츠즈 일을 분 아냐 일비지녀를 돕고즈 니르괘이다 원슈 일안의 진가
를 썩드르미 불변안식하고 날호여 청말의 좌를 주고 주식으로 관디하며
일변 성명을 무르니 냥인이 디왈 빈도 등은 계운스 화운시라 하나이다
(『임씨삼대록』 권23, 18-19쪽)

㉠과 ㉡의 장면은 녹란과 벽완이 한왕의 군대에 접근하는 장면이다. 녹란과 벽완은 녹운사, 벽운사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해 한왕의 군대에 접근한다. 이후 한왕을 도우러 온 도인이라 자신들을 소개하는데, 이들의 신이한 능력에 넘어간 한왕은 녹란과 벽완을 좌우장군으로 삼는다. 이는 화앵과 계앵 역시 마찬가지이다. ㉢은 화앵과 계앵이 임희린이 지휘하는 명군에 접근하는 장면이다. 화앵과 계앵 역시 녹란·벽완과 마찬가지로 화운사, 계운사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임희린에게 접근한다. 임희린은 이들의 진가(眞假)를 알아보나 내색하지 않는다. 화앵과 계앵은 한왕과의 전투에 나서 녹란과 벽완에게 일부러 잡힌다.

이 네 명의 시비가 설성염의 외부형 조력자로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부터이다. 화앵과 계앵은 한왕에게 귀순(歸順)하는 척하고 한왕은 이들을 좌우 장군으로 임명하기 때문이다. 화앵과 계앵, 그리고 녹란과 벽완은 설성염의 계획대로 명군이 한왕의 군대를 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한왕의 군대는 전멸하게 된다.

㉔ 한왕이 디희하여 군수를 세 세의 분하여 옥션 옥경이 전군 일디 되고 한왕은 중군이 되고 녹벽 낭인은 후군이 되고 화계 낭인은 여군을 거나려 본진을 직희니라 츠야 삼경의 군수를 비불니 먹이고 등불과 축농을 업시하고 수름은 함미하고 말을 직갈 먹여 그를 누이고 가마니 힝하여 명진의 니르니 시야 일전의 낭진 승피 하여오 시시의 임원쉬 장딴의 을 낫더니 초국 승상 니철이 주왈 신이 거야의 턴문을 슬피오니 적진의 살 그 병녕의 빗쳐시니
 (『임씨삼대록』 권23, 36-37쪽)

이렇듯 화앵과 계앵, 그리고 녹란과 벽완은 설성염이 부재한 공간에서 설성염의 명을 적절하게 수행하여 계교를 임희린이 이끄는 명군을 승리로 이끈다. 이때 이 네 명의 시비가 계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민을 하거나 주인의 결정을 만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화앵과 계앵 그리고 녹란과 벽완은 설성염이 계획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루어낸다. 하지만 이들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비의 의지나 의견이 제시되거나 주인의 상황을 염려하여 계교가 수정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비의 초월적인 능력이나 뛰어난 수행력과는 별개로 계교 형성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계교는 오로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설성염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며 시비들은 이를 수행할 뿐이다. 이를 통해 주인의 능력이 시비의 계교 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침을 짐작할 수 있다.

3 노주(奴主)의 관계와 시비의 형상화 방식

고전대하소설에서 시비의 형상화 방식은 시비가 주인과 맺는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는 시비가 가진 신분적인 특성으로 인해 비롯된 것인데, 일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비는 ‘주인의 보조’라는 근본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비의 행위하는 목적이 충성이라는 속성에 의해 발생한 경우, 노주(奴主)의 관계는 시비의 행위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영웅적 여성인물의 시비는 주인과 더욱 밀접한 관계성 내에서 적극적으로 형상화되게 된다. 주인의 행위를 시비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영웅적 여성인물의 내부형 조력자와 외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시비의 투입 시기와 영웅적 여성인물의 행위 양상

고전대하소설의 활발한 향유와 더불어 작품 내에 형상화되어 있는 여성인물의 양상도 변화하게 되었다. 대부분이 익명의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한계가 있어 이들의 정확한 창작 시기를 가늠할 수는 없으나 여러 사료(史料)들을 통해 몇몇 작품 간의 선후관계와 창작 시기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된 바 있다. 영웅적 여성인물의 등장 역시 고전대하소설의 변화과정에서 향유층의 수요에 맞추어 변화되어 온 하나의 결과로 보인다.²² 영웅적 여성인물의 등장은 시비의 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영웅적 여성인물의 지척(咫尺)에서 명을 따르고 수행하는 이들이 바로 시비이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주인에 해당하는 영웅적 여성인물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게 묘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비가 주인의 명을 그대로 순응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의지를 표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인물의 능력 향상은 그를 따르는 시비의 활동량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주인의 능력이 뛰어나수록 시비가 주인의 계교를 시행하는 절대적인 양상의 횡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계교에 시비가 참여하는 횡수가 높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시비의 참여도

22 장시광(2006)은 『화산선계록』의 이옥수와 같은 여성 영웅이 고전대하소설에 등장하게 된 것에 고전대하소설의 주된 향유자였던 사대부 여성의 독서 경향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사대부 여성은 『삼국지연의』를 비롯한 연의류 소설을 애독하였다. 『화산선계록』에는 『삼국지연의』를 원용한 다양한 속이기 기법이 등장한다. 『삼국지연의』의 내용에 익숙한 여성 독자는 자연히 『화산선계록』을 읽으며 『삼국지연의』를 떠올리고 이 가운데 『삼국지연의』의 남성영웅이 여성영웅으로 환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는 흥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삼국지연의』의 남성인물이 변용되어 『화산선계록』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산선계록』의 여성영웅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대부 여성 독자에게 교훈만 주입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념에 묶여 있던 긴장을 풀어주며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여성 영웅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장시광, 「고전대하소설에 나타난 영웅적 여성인물 연구-〈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2호, 한국고소설학회, 2006, 230-231쪽.

가 높아진다고 하여 시비가 계교 생성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승하지는 않는다. 여주인의 능력이 향상될수록 여주인이 스스로 계교를 오롯이 만들어내게 되고, 이에 따라 시비가 계교 생성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시비가 수행자(遂行者)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성현공숙렬기』의 효장 공주, 『임씨삼대록』의 설성염 그리고 『화산선계록』의 이옥수와 같은 인물의 시비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세 명의 여성인물 모두 여주인의 능력 향상이 두드러지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른바 ‘영웅적 여성인물’로 형상화된 여성인물이다. 이때 『성현공숙렬기』의 효장공주와 『화산선계록』의 이옥수가 규방(閨房)이라는 여성적 공간에서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면 『임씨삼대록』의 설성염은 규방을 벗어난 전장, 즉 남성적 공간에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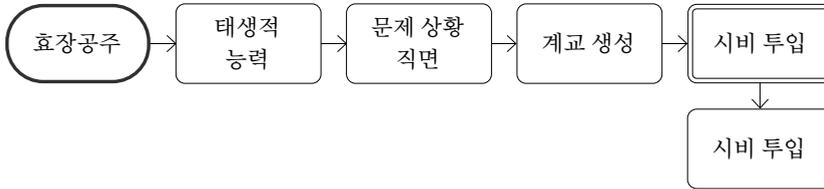
우선 효장공주와 이옥수는 규방(閨房)에서 활약하는 이들이다. 이옥수도 설성염과 마찬가지로 반동인물의 계교로 인해 도로에 유리(流離)하는 과정이 묘사되고는 있으나 설성염이 도로에 유리하는 시기에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²³과는 달리 이옥수는 이부(-府)를 떠나 있는 중에도 외부 공간에서는 활약하지 않는다. 이옥수는 외부 공간이 아닌 규방으로 돌아온 이후에 계교의 해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초월적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효장공주의 경우와 설성염·이옥수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 효장공주는 초월적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설성염과 이옥수는 도로에 유리하는 과정에서 초월적 능력을 도사(道士)에게서 습득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효장공주는 도로에 유리하지도 않고, 초월적 능력을 습득하지도 않지만 태생에서부터 통찰력이 있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어 모든 문제를 손쉽게 해결한다. 설성염과 이옥수는 통찰력에 예언능력까지 더해져 있어 문제의 해결이 더욱 수월하다. 이 세 명의 여성인물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 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

23 다만 설성염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설성염은 여러 시비를 전장에 투입하여 자신의 수족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에서는 공통점이 있다.²⁴ 주지할 점은 이 세 명의 주인이 계교를 수행하는 양상이 거의 흡사하고 그 과정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시기 역시 동일하다는 점이다.

표 1. 효장공주의 행위 양상과 시비의 투입 시기



먼저 『성현공숙렬기』의 효장공주는 세 명의 여성인물 중 가장 적은 서사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핵심 사건을 해결한 이후에도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여러 문제를 꿰뚫어보거나 속편인 『임씨삼대록』에서도 문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기는 하지만 시비를 이용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핵심적인 양상은 1회에 불과하다. 하지만 적은 횟수에도 불구하고 효장공주가 시비 비경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효장공주는 태생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설성염이나 이옥수와는 달리 초월적 능력을 습득하지는 않으나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능력도 가지고 있다. 효장공주의 뛰어난 능력은 늑흔(勒嬾)이라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세린과 혼인을 했음에도 혼례 당일에 효장공주의 자태(姿態)를 본 임부 일원들에게 곧장 인정받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후에 옥선군주가 어떠한 계교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옥선군주의 악함을 미리 확인하는 등의 여러 장면을 통해 효장공주의 능력이 범인(凡人)을 초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24 이러한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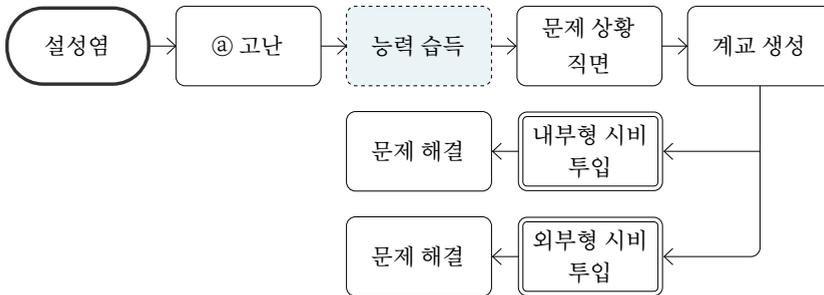
인물	『성현공숙렬기』 효장공주	『임씨삼대록』 설성염	『화산선계록』 이옥수
주된 행위 공간	규방(閨房)	전장(戰場)	규방(閨房)
초월적 능력의 습득	묘사되지 않음	외부인	외부인
시비의 소유주	본인	본인/타인	본인/타인

한 효장공주의 능력은 비경을 사용해 소 소저를 구해내는 상황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때 비경의 투입 시기가 눈여겨볼 만하다. 비경은 효장공주가 일반적인 일을 수행할 때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문제 상황을 직면하고 계교를 수행할 시기가 당면해서야 등장하기 때문이다. 효장공주가 일반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심부름과 같은 일반적인 일을 수행할 때에는 ‘시비’, ‘궁녀’, ‘시녀’처럼 일반적인 명칭으로 시비가 등장하거나 시비의 등장조차도 묘사되지 않다가 문제 상황이 직면해서야 시비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시사하는 바라 하겠다.

효장공주는 임세린과 정혼을 했던 소 소저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신이 오해를 받을 상황이 생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경을 이용한다. 비경은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다가 효장공주에게 문제가 발생하자 등장해 물 흐르듯 문제를 해결한다. 시비가 주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설성염이나 효장공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표2. 설성염의 행위 양상과 시비의 투입 시기



설성염의 행위 양상²⁵은 효장공주의 양상보다 더욱 복잡하다. 효장공주와는 달

25 설성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인물이 설성염의 시어머니이자 『성현공숙렬기』의 여성주동인물인 주숙렬이다. 주숙렬은 설성염과 마찬가지로 도로에 유리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습득하고 남장을 하고 직접 참전하는 인물이다. 설성염이 시비들을 자신을 대신해 전장으로 보낸다면 주숙렬을 직접 출전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리 설성염은 고난을 겪고 도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설성염과 효장공주의 차이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효장공주가 태생부터 탁월한 능력으로 묘사되었던 것과는 달리 설성염의 능력이 초월적 능력을 습득하기 전인 초반부에는 두드러지게 묘사되지 않았다는 점²⁶이고, 둘째는 설성염이 도로 유리 과정에서 초월적 능력을 습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에도 시비는 문제 상황을 직면한 이후에 투입된다. 다만 여기에서 특징적인 점이 드러난다. 설성염이 1차로 고난을 겪는 ‘㉔ 고난’ 시기에는 시비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일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시기가 이후의 ‘문제 상황 직면’과 다른 부분은 설성염이 뛰어난 능력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아직 영웅적 여성인물로 변모하기 전의 시기에서는 주인의 명령을 순응하는, 이른바 ‘수행자로서의 시비’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²⁷

‘수행자로서의 시비’가 투입되는 시기는 설성염이 능력을 습득한 이후에 문제 상황을 직면하는 시기이다. 설성염이 능력을 습득하기 전 시비들은 주인을 보필하는 일반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직접 나서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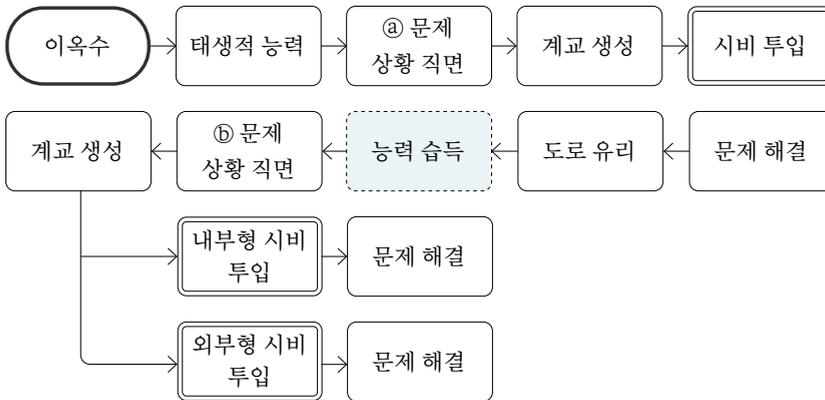
노주의 관계에서는 주숙렬과 설성염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설성염이 시비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시비들이 이를 순응한다면 주숙렬의 시비들은 단순히 주인의 명령을 순응하지만은 않는다. 이는 주숙렬이 가지고 있는 소극성 때문으로 보인다. 주숙렬은 유교적 이념, 즉 가부장제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주숙렬은 자신의 의지로 참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옥수, 설성염과는 다른 양상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26 서사의 초반부, 설성염은 여성주동인물이 가진 외모의 아름다움, 부덕(婦德)과 같은 긍정적인 여러 성향 등이 묘사되어 있기는 하나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초월적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 초반부에 설성염이 점괘를 보고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게 되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운명을 알고 있음에도 해결하지 못함을 한탄하는 모습에서 설성염의 능력이 가지는 한계를 알 수 있다. 이는 반동인물인 옥선군주의 계교에 결국 유배를 가게 되는 설성염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아히 난 디 업슨 지되 고이허여 근니 녀니를 달통허여 모든 오라비 길흉을 추점하니 다 효되 소와 저의 익회 비상할 분 아냐 저의 신쉬 초악하니 목님오묘의 늦기는 점괘를 히득하고 더욱 측간 출입도 씨를 아라 두리며 도심하고 (중략) 쇼제 진슈를 늦초고 옥음이 낭낭허여 복슈 디왈 성인도 오는 익을 면치 못후옵느니 미스는 하늘의 붓칠 분이오니 야야는 물우물녀허쇼셔” 『임씨삼대록』 권2, 48-51쪽.

27 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지 않는 주인의 문제 상황을 시비가 온전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성염의 고난은 시비가 아닌 초월자에 의해 해결된다.

는다. 설성염의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시비들이 아니라 초월적 능력을 가진 위 진관이라는 인물이다. 이를 통해 능력을 가진 여성인물이 문제 상황을 직면한 경우에만 시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인의 명령을 오롯이 순응하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시비 유형은 주인의 능력이 뛰어난 정도를 넘어서는, 즉 범인(凡人)을 벗어난 형태의 영웅적 여성인물 유형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산선계록』의 여성주동인물인 이옥수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이옥수의 행위 양상과 시비의 투입 시기



『화산선계록』의 이옥수는 효장공주와 설성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적 인물이다.²⁸ 『화산선계록』의 이옥수는 규방이라는 여성적 공간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외부 공간의 문제까지 모두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녀는 『화산선계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등장하는데 남성주동인물인 위현이 있으나, 사실상 남성인물인 위현보다도 여성인물인 이옥수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옥수의 능력은 남성주동인물이자 위부의 가부

28 효장공주가 태생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설성염이 초월적 능력을 차후에 습득한다면 이옥수는 태생적인 능력과 더불어 초월적 능력까지 습득하기 때문이다. 세 명의 여성인물 중에 가장 여성영웅에 가까운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장인 위현보다도 뛰어나게 묘사되며²⁹, 사실상 여성영웅으로서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⁰ 이처럼 이옥수는 여러 방면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며 『화산선계록』 갈등 해결의 주축이 된다.³¹

여성영웅 형상을 가장 뚜렷하게 지니고 있는 이옥수는 효장공주가 가지고 있던 ‘태생적 능력’과 설성염이 이후에 취득하게 된 ‘초월적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에 시비 역시 두 차례에 나누어 투입되게 된다. 먼저 이옥수는 태생적으로 범인(凡人)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㉔ 문제 상황 직면’ 시기에서도 계교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부형 조

29 이옥수는 자신의 남편인 위현이 전쟁에 출전할 때에도 배후에서 이를 조종한다. 위현이 『화산선계록』의 가장 주된 남성중심인물임을 고려한다면 매우 특이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인물인 이옥수가 남성인물의 행동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화산선계록』의 이옥수와 같이 탁월한 능력으로 묘사된 여타 고전 대하소설의 여성주동인물과 비교했을 때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일례로 『성현공숙열기』의 여성주동인물 주숙렬과 양상을 비교할 수 있다. 주숙렬은 주현수라는 이름으로 남장을 하고 전장에 출전하는 영웅적 여성주동인물이다. 주숙렬은 대원수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임희린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남성으로 위장하여 출전한다는 사실이 인륜을 벗어나는 일이라며 한탄하기도 한다. “주숙렬은 단 한 번도 ‘사대부가 여성의 삶을 탈피’하고자 하지 않는다. 대원수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뤄냈음에도 그에게 내려진 것은 ‘효문공주’라는 직첩뿐이며, 숙렬 또한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전쟁터에서 직접 구해낸 남편 임희린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야 했으며 결국은 다시 시가로 돌아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낸다. 주숙렬이 뛰어난 인물임을 반론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여화위남(女化爲男)의 모든 과정은 주숙렬이 가진 능력과 관계없이 그의 영웅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갈등 해결을 위한 과정의 일환(一環)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김민정. 앞의 글, 263쪽.

30 장시광(2006)은 이옥수가 여성영웅의 형상을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장시광, 앞의 글, 197-238쪽.

31 “이옥수의 빼어남은 남성주동인물인 위현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이 부각된다. 위현은 이옥수의 남편으로서 위부의 가장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위현이 능력이 아예 없는 인물은 아니다. 일단 위현은 작품에서 신명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걸맞게 여섯 차례 정도 서달이나 거란 등을 정벌해 공을 세우기도 하며 집안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면은 이옥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위현이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할 만하고 작품에도 상세하게 묘사된 북한 잔당 정벌을 예로 들더라도 그가 그렇게 공을 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이옥수가 배후에서 조종을 한 덕분이다.” 위의 글, 223-224쪽.

력자로서의 시비 중 하나인 능소와 능옥이다. 능소·능옥은 이옥수의 명을 받아 탕 부인의 계교를 저지한다. 이후 이옥수는 탕 부인의 계교를 피하기 위해 자의(自意)로 이부를 떠나게 된다.³² 이옥수는 이부를 떠나 있는 과정에서 원화진인을 만나 초월적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초월적 능력을 습득한 이후의 이옥수의 문제 해결 양상은 더욱 다양해진다. 이부나 위부와 같은 가정 내에서의 갈등 외에 외부의 문제 상황까지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이옥수는 비취, 설란과 같은 시비에서부터 비운, 고정 등과 같은 노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복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한다.

능력을 부여받은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이옥수의 양상은 설성염이 능력을 부여받은 이후에 전장에 개입하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설성염과 이옥수의 양상이 보이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초월적인 능력을 습득한 여주인이 시비를 내·외부로 공간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³³ 설성염은 앵섬, 매송, 열영 등의 시비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하고 화영, 계영, 녹란, 벽완과 같은 시비는 전장에 침투시켜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옥수 역시 마찬가지이다. 능소나 능옥과 같은 시비는 이옥수가 거처하는 위부 동창궁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비이고, 비취, 설란

32 설성염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설성염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옥선군주의 계교로 인해 유배를 떠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죽을 위기에도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옥수는 자신이 자의로 이부를 떠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 소저와 유 소저를 만나 인연을 맺기도 하며, 원화진인을 만나 능력을 하사받기도 한다. 즉 설성염에게 도로 유리 과정은 일종의 고난이지만 이옥수에게 도로 유리 과정은 고난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능력을 얻기 위한 과정 정도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시비의 문제 해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장시광(2006) 역시 이옥수가 여성 영웅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별다른 고난을 겪지 않음에 주목했다. “이옥수의 경우와 같이 오히려 이 단락들이 없는 것이 영웅의 자질을 더욱 잘 보여줄 때도 있다. 이옥수가 별다른 고난 없이 반동인물을 제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녀는 시련을 통해 단련된 영웅보다 오히려 고차원적인 영웅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글, 219쪽.

33 이는 영웅적 여성인물들의 초월적 능력이 규방을 벗어난 공간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여성적 공간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펼쳤다면 ‘초월적 능력’을 습득한 이후에는 외부 공간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외부형 시비들이다.

과 같은 시비는 위부를 벗어난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비를 공간에 따라 내·외부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설성염과 이옥수는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계교의 수행자가 되는 것 역시 시비이다. 이는 비슷한 유형의 여성인물인 효장공주의 양상과 비교해보았을 때 더욱 명백하다. 효장공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자신이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자 시비 비경에게 계교를 가르친 것이다. 이는 이옥수가 초월적 능력을 습득하기 전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 이옥수 역시 초월적 능력을 습득하기 전에는 자신의 신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 때문이다.³⁴ 하지만 초월적 능력을 하사받은 이후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이옥수가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양부(-府)의 문제나 황궁의 문제, 전쟁 상황까지 개입하고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는 설성염 역시 마찬가지이다. 초월적 능력을 습득하기 전 자신에게 닥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반동인물의 계교로 인해 도로에 유리하던 상황과는 상이한 모습이다. 한군과의 전쟁에서 명군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설성염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초월적 능력’의 습득으로 인해 설성염과 이옥수가 서사의 ‘문제해결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월적 능력을 습득한 이후에, 설성염과 이옥수 모두 자신의 시비가 아닌 타인의 시비까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앞서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여성인물들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설성염과 이옥수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시비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옥수는 자신의 심복 시비인 능소와 능옥은 동창궁 내에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비취, 비운, 고정, 설란과 같은 타인의 비복(婢僕)은 필요에 따라 발탁하여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설성염 역시 마찬가지이다. 앵섬, 매송, 열영과 같은 자신의 시비는 내부형 문제

34 설성염은 초월적 능력을 습득하기 전 시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를 해결하도록 하며, 녹란과 벽완³⁵ 같은 시비는 적진으로 보내 문제를 해결하게끔 한다. 이때 외부의 시비가 아닌 설성염의 시비인 화앵과 계앵이 설성염의 곁을 떠나 전장에서 계교를 해결한다는 특이점이 있으나, 녹란과 벽완이 한왕의 군대인 한군으로 떠나는 것과 달리 화앵과 계앵³⁶은 임희린이 주둔하고 있는 명군으로 가게 되고, 화앵과 계앵의 주인인 임희린이 이들을 알아보고 임월혜에게 보내므로 사실상 녹란과 벽완이 적진으로 떠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3.2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구화되는 시비

이처럼 영웅적 여성인물을 조력하는 시비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양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주인의 명을 순응하는 이른바 ‘수행자로서의 시비’들은 상황을 직접 이끌어 나가기도 하며, 적진에 침투해 적을 교란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시비들의 행위 양상이 실제로 이들의 ‘진정한 주체성’으로 인한 것인가는 의문스럽다. 시비들은 주인의 수족(手足)으로, 어디까지나 주인을 위한 도구로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앞서 살펴본 시비들의 투입 시기가 이를 증명한다.

영웅적 여성인물의 시비들은 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서사에 투입된다.³⁷ 이는 시비의 조력자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시비의 존재 이유가 주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상화된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비가 등장하는 양상, 시비의 능

35 녹란과 벽완은 위 진관에게 하사받은 시비이다.

36 화앵과 계앵은 설성염의 시비임과 동시에 설성염의 시가인 임부(林府)의 시비이기도 하다.

37 “국문장편 고전소설 중 <소씨삼대록>과 <유씨삼대록>에서는 여성보조인물의 활약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여성보조인물은 선한 여성이 고난을 당하거나 악한 여성이 악행을 저지를 때에 주로 등장하는데, 이들에서는 선한 여성인 석부인, 형부인, 이부인 등이 남편 소현성의 오해, 소운성의 집착, 시어머니 화부인과 남편 운명의 무지와 오해가 고난의 원인이었으므로 보조인물이 불필요했다. 또 악한 여성 여부인과 명현공주도 시녀나 유모 등을 동원하기보다는 자신이 개용단을 먹고 악해를 저지르거나 발악을 하는 것으로 그쳤기에 행위의 규모가 커지지는 않았다. 이 두 작품의 경우, 여성보조인물들이 많지 않기에 작품 전체의 길어도 장편소설 중에서는 짧은 편에 속한다.” 정선희, 앞의 글, 188-189쪽.

력,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 등의 여러 양상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그 녀지 삼오이팔은 하고 분면 화안이 정모 쇠락하고 쌍미 낭안의
맑은 정기 어리어시니 니부 당 쇼제 시오 능쇠러라

(『화산선계록』 권2, 42쪽)

㉡ 그 오히 용뵈 미려홀 분 아나 뵈고 도흐며 영기 과인하니 크게 깃거
일흠과 나홀 무룬디 십이세로라 하고 일흠은 설미라 하니 가네 저의 동
금미의 투미홀물 한하다가 디희하여 심히 사랑하니 설미 총민영오하니

(『화산선계록』 권 49, 57-58)

위의 본문은 능소와 비취³⁸의 등장 장면에 대한 묘사이다. 이들은 등장에서부터 이옥수의 시비에 걸맞은 아름답고 총명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들의 외모, 행위 묘사는 ‘주인의 명을 적절히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표출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옥수가 뛰어난 인물이기는 하나 실전에 나서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계교를 대신하는 시비들이다. 시비들이 이옥수의 능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서사적으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의 능력 역시도 어느 정도는 증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능소와 비취의 능력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먼저 공통적으로 두 시비 모두 맑은 정기(精氣), 맑고 좋은 기운, 영기(靈氣) 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는 이들이 긍정적 성질을 지닌 인물임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특이한 것은 능소의 외모를 ‘눈빛이 맑고 깨끗하다’와 같이 외모를 ‘아름다움’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묘사한 것과는 달리 비취의 외모를 ‘미려(美麗)하다’ 즉 아름답다는 표현을 사용해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비의 외모에서 아름다움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두 시비가 가진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능소는 이옥수의 계교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시비이지만 비취는 이중첩자로 이름을 속인 뒤 가

38 본문에는 설매로 되어 있으나, 실제 본명은 비취이고 설매는 가십량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가명(假名)이므로 본고에서는 비취로 통일하여 사용함을 밝힌다.

십량의 시비가 되기 때문이다. 가십량의 호감을 사기 위해 비취의 외모가 아름답게 묘사된 것이다. 비취의 외모는 이후에 비취의 정체를 의심한 양부(-府) 일가와의 대화 속에서도 언급된다. 양 선생의 자녀들에게도 비취는 반동 행위를 저지를 인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취의 외모가 여러 인물에게 신뢰를 주는 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비의 외모 역시 시비가 주인의 계교를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갈등이 해소된 후에 공(公)을 치하(致賀)하는 과정에서 시비의 충성심만이 강조되는 것으로 시비의 도구화를 짐작할 수 있다.

㉞ 비경이 계교 순흐를 깃거 왈 우리 옥주의 성덕이 적국을 위하샤 신출귀몰흔 밀계를 베프시미 황턴이 감동하샤 성신 순흐리로다

(『성현공숙렬기』 권10, 12쪽)

위의 장면은 효장공주의 시비인 비경이 모든 계교가 성공한 것이 효장공주에 밀계가 신출귀몰해서임을 언급하는 장면이다. 모든 행위는 비경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비경은 효장공주의 뛰어난만을 언급한다. 이는 이후 문제 상황이 모두 해결되자 임부(林府)에서 효장공주의 은혜를 칭찬하는 과정에서도 다시금 언급된다. 이때 임부의 일원들은 비경이 계교를 수행한 일을 듣고 공덕(功德)을 치하하지만 비경의 능력으로 인해 문제 상황이 해결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경이 효장공주의 명을 잘 수행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그의 충성심으로 인해서이고, 모두들 효장공주의 계교의 뛰어난에 놀라기 때문이다. 이는 비취의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모든 갈등이 해결되자 양 선생이 비취의 의기를 칭찬하는데³⁹, 양섬에 의해 이 모든 것은 비취가 아닌 이부인의 획책(劃策)임이 언급된다.⁴⁰ 갈등 해결을 위한 물리적 행위가 비취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9 “설미는 하동이니완디 니 집 위티흐를 붓드러 무스케 하고 흥적을 잡게하고 용소를 보니미다 설미의 은혜니 어느 날 맛나 갑흐리오 이는 다 현부의 지극한 성효를 신명이 감응하미니 엇지 치스치 아니리오” 『화산선계록』 권55, 4쪽.

40 “공적 위부의 고티다가 주연이 설미 지스를 알고 위부 일기를 비러 보미 설미의 작시 니 부인의 명하미요 건낭 방중 모든 간당이 주멸함도 니 부인 획척이라 공적 무슈 칭은하고 한벌을

고 비취의 공은 별달리 치하되지 않은 채 이옥수의 신명함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가십랑의 모든 계교가 밝혀지고 징치를 받자 비취는 별다른 언급 없이 서사에서 퇴장한다.⁴¹

마지막으로 영웅적 여성인물이 타인의 시비를 영입하거나 하사받는 과정 역시 시비의 도구화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영웅적 여성인물에게 신이한 능력이 부가되면서 이들은 규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 문제에도 개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계교에 비해 외부의 계교는 한계점이 많다. 물리적인 거리감으로 인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고려할 사항 역시 내부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⁴² 이로 인해 투입되는 것이 바로 시비들이다. 하지만 외부의 계교의 수행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주인과 시비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문제를 해결할 시비는 내부형 시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시비가 선택되게 된다. 주인의 계교를 1번 정도만 듣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이나, 반동인물을 속일 수 있는 아름다운 외모와 총명함, 신이한 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뛰어난 능력을 습득한 주인의 시비들은 내·외부로 범위가 나누어지게 된다.

주지할 점은 설성염이나 이옥수⁴³와 같은 영웅적 여성인물이 좀 더 발전한

벗서 튀아그 드리니 쳐식 크게 괴이코 감은혀 위부를 바라 칭스히니라” 『화산선계록』 권 55, 7쪽.

- 41 이후 권70에서 설부 계자와 성혼(成婚)하였다는 언급이 있기는 하나 비취의 문제 상황에 간여하는 구체적 양상이 묘사되는 것은 권55가 마지막이다.
- 42 이러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사적 장치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비취의 경우가 그러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화산선계록』의 비취는 이옥수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16번 가량 공간을 이동한다. 서술자는 이 과정을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이 이옥수에 의해 시행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 서술자의 의도는 모든 계교가 밝혀진 후에 명확히 드러난다. 비취는 동창궁과 양부를 번갈아가면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거리에 있기에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시비의 경우는 다르다. 비취처럼 물리적 거리가 가깝거나 비경과 같이 일회성 계교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공간 이동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 43 효장공주는 내부형과 외부형으로 시비를 나누어 계교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내·외부의 계교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시비를 발탁하거나 하사받아 사용하는 점이다. 이는 자신의 심복 시비만으로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타인의 시비를 이용하는 것은 서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한 인물이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시비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나 여러 상황에서 시비를 발탁하거나 시비를 하사받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서사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비가 뛰어난 도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이미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타인의 시비를 발탁한 것이므로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즉 한 명의 주인이 여러 공간으로 시비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 영웅적 여성인물이 타인의 시비를 발탁하거나 하사받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문제 상황을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이자 서사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비는 철저히 도구화된다. 시비는 주인의 수족(手足)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에 있으나 시비가 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시비는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인의 명령을 순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비의 적극성은 시비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능력이 대입된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비가 주인의 능력을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인 셈이다.

3.3 서사 문학 내의 시비와 배제된 서술시각

고전대하소설의 시비의 양상은 여성영웅소설의 시비의 양상과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묘사된다. 이들은 주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인물유형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시비 유형으로 『박씨전(朴氏傳)』의 계화를 들 수 있다. 계화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여성영웅 박씨의 곁에서 그를 충실히 보필하는 조력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계화는 사대부 여성인 박씨가 공간적 한계로 인해 행위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인의 수족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박씨는 『화산선계록』의 이옥수와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특히 계화가 박씨의 명으로 피화당(避禍堂)에서 자객 기흥대

를 처리하는 양상은 이옥수의 명으로 능옥이 동창궁에서 자객을 처리하는 양상과 매우 흡사하게 나타나 있다.

이 외에도 여성영웅소설인 『김희경전(金喜慶傳)』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김희경전』에는 주인을 적극적으로 보필하는 시비가 등장하는데, 그 양상이 고전대하소설의 시비와 매우 흡사하다. 장설빙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여성영웅이지만 다른 여성영웅이 남성으로서의 기질을 타고나는 것과는 달리 전통적인 여성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⁴⁴ 또한 고전대하소설의 영웅적 여성인물과 흡사한 양상으로 도로에 유리(流離)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남장(男裝)을 하게 되는 한계도 지닌 인물이다. 이 시기에 장설빙을 보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춘과 설랑이라는 시비이다. 이때 『김희경전』의 장설빙은 『성현공숙렬기』의 주숙렬과 비슷한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두 명의 여성인물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로에 유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남복을 개착하고,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사한 서사 구조를 가진 장설빙과 주숙렬은 전혀 다른 결말을 보인다. 주숙렬이 여성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달리 장설빙은 벼슬을 하고 6년간이나 남성으로 살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영웅소설에서의 여성영웅과, 고전대하소설에서 영웅화(英雄化)된 영웅적 여성인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다.

고전대하소설은 여성의 덕목을 충실히 체현하고 있으나 여성영웅소설은 이와는 다르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을 묘사할 때에는 건장한 신체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지혜가 활달하다거나 천지조화를 감추었다거나 글 읽기와 무예에 힘쓴다거나 하는 보통의 남성주인공들에게 부여되던 관습적 표현들이 동원된다.⁴⁵ 이렇듯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여성적 덕목을 거스르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고전대하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한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비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상층 계급의 여성인물의 양상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과 달리 두 장르의 시비

44 이소연, 「활자본 〈김희경전〉에 나타난 설빙의 여화위남(女化爲男)과 의식 변화」, 『한국언어문화』 제69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172쪽.

45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국문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 형상화 비교」, 『고소설연구』 제31호, 한국고소설학회, 2011, 119쪽.

의 양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이한 두 장르의 시비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 신분의 고하, 남녀를 막론하고 당대 조선의 향유층들이 시비를 보는 시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소설을 향유하던 독자의 시각이 ‘하층민’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영웅소설을 향유하던 민중은 그 자신이 상층 계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영웅소설에서 ‘영웅적 형상화’를 한 상층 계급의 여성에게 자신을 투영한다. 이는 독자의 시각이 중심인물을 향해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바라 하겠다. 따라서 그것이 판소리계 소설이든 고전대하소설이든 여성영웅소설이든 간에 독자들과의 시선이 향하는 중심인물 즉 ‘상층 계급의 여성’의 형상화에만 차이를 가져올 뿐, 시비는 주변인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층 계급의 여성’이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이상,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시비는 필연적으로 주인을 보필해야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시비가 서사의 중심에는 위치하지 못하고 대상화되며 배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문학사에서 형상화된 시비의 모습은 그 시비의 적극성이나 소극성과는 관계없이 대상화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고전대하소설의 경우에도 더욱 강조된다. 향유층이 사대부가 여성이고, 이로 인해 고전대하소설은 유교적 이념을 충실히 구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⁴⁶

46 사대부가 여성은 누구보다도 유교적 이념을 공고히 지켜내는 인물들이다. 특히 고전대하소설에는 충이나 효보다 ‘열(烈)’이 부각되어 있는데 남성에게 필요하지 않은 여성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열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은 고전대하소설이 지향하는 바가 여성을 향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대부 남성에게 의해 만들어져 사대부 여성에게 강요되고 사대부 여성에게 의해 하층 여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사실 그녀들이 열, 투기 금지를 최고의 이념으로 생각했던 것은 남성들의 획책 때문이었다.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에게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그녀들이 열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도록 세뇌를 시킨 것이다 閨訓書를 읽고, 열 이념을 교육받고, 정려문을 본 여성들은 스스로 가부장제의 한 축이 되어 감을 깨닫지 못한다. 투기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대하소설도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굳히는 데 한 몫을 담당했던 것이다.” 장시광,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士大夫家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제29권, 동양고전학회, 2007, 169-170쪽.

4 결론

이 글은 고전대하소설에 나타난 영웅적 여성인물의 시비를 내부형·외부형으로 나누고 이들의 양상과 주인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현공숙렬기』의 효장공주와 속편(續篇) 『임씨삼대록』의 설성염 그리고 『화산선계록』의 이옥수의 시비들은 주인과 시비의 물리적 거리에 따라 내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와 외부형 조력자로서의 시비로 양분(兩分)할 수 있다. 공간에 따른 시비의 분화는 영웅적 여성인물의 명령을 수월하게 순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영웅적 여성인물의 시비들은 주인의 명령을 순응하는 형태로 형상화되는데 이는 주인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주인이 주도적으로 계교를 생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비가 계교를 생성하는 과정에 굳이 기여하지 않더라도 주인의 능력만으로 반동인물을 저지할 완전한 계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시비는 수행자로서의 모습으로만 형상화된 것이다.

이때 영웅적 여성인물의 시비들이 투입되는 시기가 눈여겨 볼만하다. 시비들은 주인이 초월적 능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문제 발생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상황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성현공숙렬기』 효장공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의 발생과 동시에 시비 비경이 계교의 수행자로 투입된다. 조금 더 발전한 형태를 보이는 『임씨삼대록』의 설성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설성염의 능력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도 시비가 개입되지 않는다. 이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지 않은 주인의 문제를 시비가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1차로 발생한 고난은 시비가 아닌 초월자 위 진군에 의해 해결된다. 시비가 문제 상황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설성염이 위 진군에게 초월적 능력을 하사받은 이후의 문제 상황에서이다. 『화산선계록』의 이옥수는 효장공주와 설성염의 양상을 공통적으로 보이는 가장 완성된 형태의 영웅적 여성인물이다. 이옥수는 효장공주와 마찬가지로 태생부터 뛰어난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으며 설성염과 마찬가지로 서사의 중반부 도인(道人)인 원화진인에 의해 초월적 능력 역시 하사받게 된다. 이에 따라 1차 문제 상황과 2차 문제 상황에서 시비가 공통적으로 투입되게 된다. 주인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시비의 투입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시비가 주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사에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조력자나 남성인물이 아닌 여성인물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자로 시비가 투입되고 있음은 주지할 만하다. 시비의 역할이 단순히 주인의 보필에만 있지 않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비의 적극적 양상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주인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문제 상황에 투입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시비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영웅적 여성인물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시비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다. 일반적인 여성인물의 경우에는 시비가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웅적 여성인물의 모든 행위가 시비를 통해 이루어짐에도 시비의 수행 능력은 철저히 배제되고 주인의 계교 생성 능력만을 강조하는 서사에서 시비를 바라보는 고전대하소설의 서술시각을 짐작할 수 있다. 시비는 주인의 능력을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철저히 도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비의 도구화는 당대의 시비를 향한 불합리한 차별을 나타내고 있음과 동시에 고전대하소설의 봉건적인 이데올로기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 글은 이처럼 영웅적 여성인물과 시비의 관계성을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시비의 도구화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글은 몇몇 작품의 단편적인 시비 양상을 가지고 서사를 진행했다는 데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시비의 보편적인 양상을 정리하고 이에 드러난 고전대하소설에서의 시비의 위상을 살피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둬야 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성현공숙렬기』(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25권 25책)

『임씨삼대록』(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40권 40책, 김지영 외, 『임씨삼대록 1~5』, 소명출판, 2010)

『화산선계록』(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80권 80책)

단행본

이 푸 투안,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165-169쪽.

논문

김민정, 「〈쌍천기봉〉에 나타난 적극적 행동주체로서의 시녀」, 『은지논총』 제 61권, 은지학회, 2019, 99-122쪽.

_____, 「〈이씨세대록〉 시비(侍婢)의 역할 변화와 그 의미: 흥연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49호, 한국고소설학회, 2020, 181-217쪽.

_____,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내·외부 조력자로서의 시비(侍婢)-열영, 상운, 매송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239-269쪽.

_____,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복심(腹心)으로서의 시비-난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92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31-52쪽.

_____, 「〈화산선계록〉에 나타난 조력자로서의 비복(婢僕)-비취·비운 남매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제34호, 동양문화연구원, 2021, 197-232쪽.

_____, 「〈화산선계록〉에 나타난 ‘여주인-시비(侍婢)’의 관계-시비 설란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51호, 한국고소설학회, 2021, 71-115쪽.

윤보운, 「〈쌍주기연〉의 보조인물 고찰」, 『어문연구』 제93권, 어문연구학회, 2017, 155-186쪽.

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에 나타난 영웅적 여성인물 연구-〈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2호, 한국고소설학회, 2006, 197-238쪽.

_____,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士大夫家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제29권, 동양고전학회, 2007, 147-176쪽.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보조인물의 양상과 서사적 효과」, 『국어국문학』 제 158호, 2011, 245-274쪽.

_____, 「장편고전소설에서 여성 보조인물의 추이와 그 의미-여성 독자층, 서사 전략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제40호, 고소설학회, 2015, 169-201쪽.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
웅쌍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93쪽.
_____, 「〈도앵행〉의 재치있는 시비문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3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349-382쪽.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ids and
Heroic Female Characters in Classical Epic Novels

Kim Minjeong

Maids in classical epic novels are mainly helpers who serve their masters. Regardless of how excellent female owners belonging to the gentry are, it is difficult for them to carry out their schemes due to the conservative nature of women of their status. That is why maids came to act as substitutes for owners. Maids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helpers and external helpers according to the space in which they perform their tasks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owners. This differentiation between types of help is even more prominent in cases where the owner is constructed as a “heroic female character” with excellent abilities. In classical epic novels, the trajectories of “heroic female character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female protagonists in female hero novels. Whereas female protagonists in female hero novels are portrayed as trying to escape from the life of a settled woman, the heroic female characters in classical epic novels are portrayed as conservative figures who conform to Confucian ideology without deviating from their lives as women while also living a life similar to that of female heroes in novels. Therefore, maids who serve heroic female characters carry out unethical and unfeminine actions in place of their owners so that the owners do not deviate from Confucian ideology. In this process, despite their active approaches, each maid is taken advantage of and used as a means for an end. This is an example of the reality of maid maids who were excluded and discriminated against within narratives.

Key words: classic novel, epic novel, *Seonghyeongongsukryeolgi*, *Limsisamdaerok*, *Hwasanse ongyerok*, heroic female character, maid, lower-class women, helper

본 논문은 2021년 11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